

## [2023년 제11회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총평]

총평자 박문각 행정사 임병주 교수

이번 제11회 행정사실무법 문제를 총평을 해보자면 ‘불의타는 없었다.’라고 총평을 해봅니다.

최종정리 때 시험이 10년이 지났고 이제 기출문제가 반복될 것이므로 기출문제에 출제된 주제와 쟁점을 꼭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예상대로 기출되었던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은 사례형 문제로 행정심판법 문제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성 여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심판법상 구제방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간접강제를 잘 서술하면 기본점수를 확보하고 직접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제6회, 제7회, 제10회에서 유사한 쟁점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무난하게 서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2]는 행정사법상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서술문제로 자격취소는 제2회, 업무정지는 제1회에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의 사유, 업무정지의 경우 제재처분의 승계를 서술하면 되고 자격취소는 기속행위이고 업무정지는 선택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을 서술했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3]은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한 것으로 토지관할은 일반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는 개별적 관할을 규정한 다음 총칙편에 특칙을 서술하면 됩니다. 이송의 경우 우선관할의 개념을 서술하고 이송의 두가지 형태와 이송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제3회 때 15점 배점으로 출제가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 4]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항고종류 4가지와 효과에서 확정차단과 관련 통상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점, 항고로 인한 재판의 집행정지 인정여부를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서술하면 됩니다. 항고의 종류는 제3회에 이미 출제가되었던 문제이고, 항고제기의 효과는 제8회에 출제가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올해 문제는 중요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춰 학습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 시험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가슴 깊이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